

기후위기에서 경제위기로: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기후위기에서 경제위기로: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기후위기에서 경제위기로: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발간일

2024년 1월

저자

고동현 기후금융팀장 (donghyun.go@forourclimate.org)

요약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이상인 연간 1억 6천만 톤(2022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주로 공급 전력의 60% 가량을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중심 운영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 과제로 꼽힌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공급 대란은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의존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불안정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은 2022년 석탄 10조 원, 천연가스 20조 원 등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금액을 연간 20~30조 원 가량 증가시켰다. 이 가운데 전기료 상승은 억제되는 역마진 구조에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50조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채권 발행 확대는 물가, 금리 상승기의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켰다.

또한 한국전력의 자금 조달 여파는 채권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단기사채, 기업어음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ESG 위험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31조, 2023년 12조 원이 발행된 한국전력 채권은 관련 채권 발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9%에서 2022년 29%로 급증하면서 일반회사채 발행량은 30% 감소했으며, 2023년 채권시장 비중도 12%에 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발행량이 급증한 단기사채는 2022년 전체 단기사채의 15%, 2023년 12%를 차지하였으며, 기업어음의 경우 2023년 발행량이 증가해 전체 기업어음 중 비중이 2021년과 2022년 8%에서 2023년 11%로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2024년에도 19조 원의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고, 채권 발행한도가 늘어나면서 최대 30조 원 가량의 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또 다시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어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2022년부터 2년 여간 이어진 한국전력의 위기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타 산업,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한국전력의 채권과 단기 자금 조달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당국이 임시 처방이 아닌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산업 구조를 탈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금융 시장, 국가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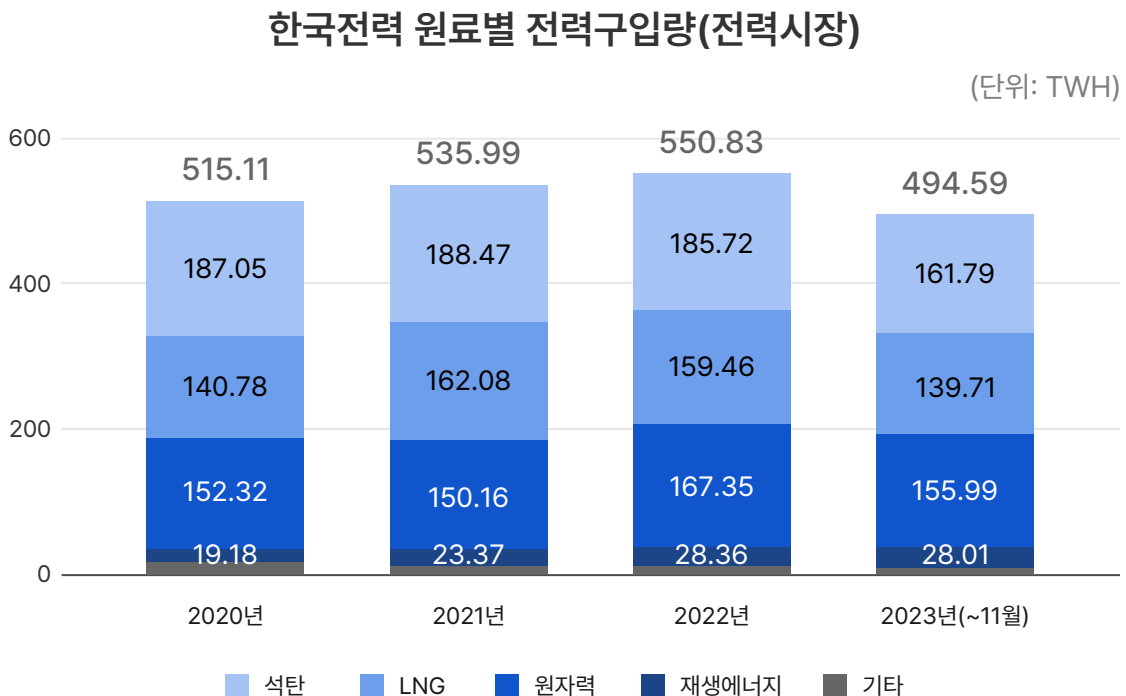
1. 배경: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채권 발행	1
1) 에너지 위기와 한국전력 적자	1
2) 채권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3
2.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전망	5
1) 한전채 블랙홀 현상	5
2) 채권 발행 축소와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	6
3) 중간배당 및 지분매각을 통한 사채발행한도 확대	8
4) 글로벌 해외 운용사들의 한전채 보이콧	9
3. 향후 대응 과제	11
1) 사채발행 감독 강화	11
2)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한계	12
3)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12
[별첨 1]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내용(2022년 12월)	13
참고문헌	14
관련 통계	14
관련 기사	14

1. 배경: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채권 발행

1) 에너지 위기와 한국전력 적자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공급 대란은 석탄, 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짐
- 한국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 전력의 60% 이상을 석탄과 천연가스 기반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전력도매 시장가격(SMP)은 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여 국제 연료 가격의 영향을 받아 결정됨(한가희 외, 2022)¹
- 연간 40~50조 원 대에 머물렀던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금액은 연료별 전력구입량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2022년 85조 원, 2023년 11월까지 69조 원으로 급증
- 한국전력의 연료비 상승은 2022년 기준 각각 약 10조 원과 20조 원 구입 금액이 증가한 석탄과 천연가스 구입 금액 상승에 따른 것이며, 2023년에도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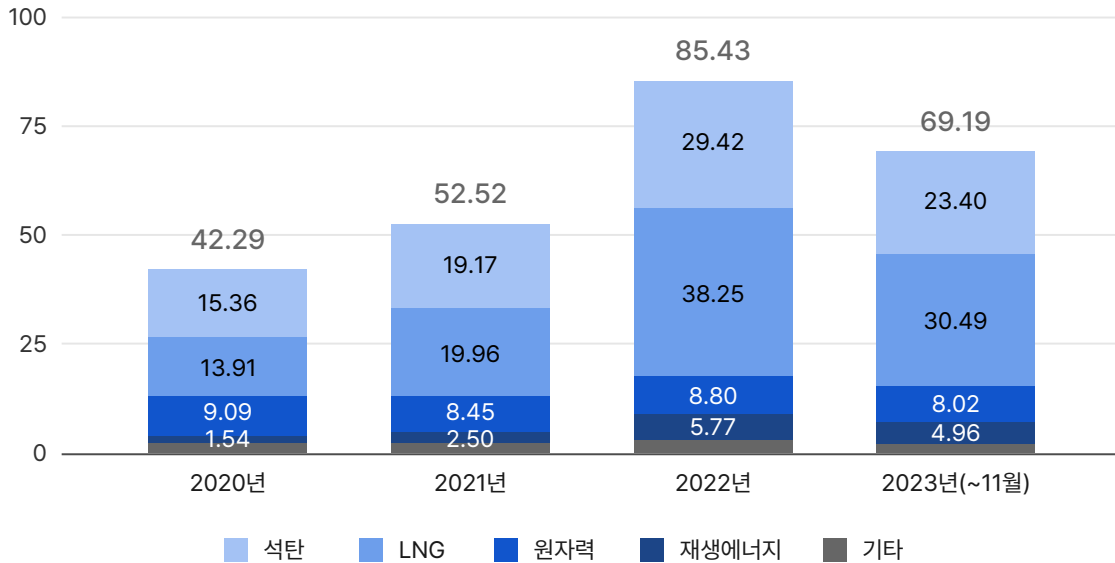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전력 원료별 전력 구입량 및 금액 변화



1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전 적자, 검은진법>(한가희 외, 2022)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한국전력 원료별 구입금액(전력시장)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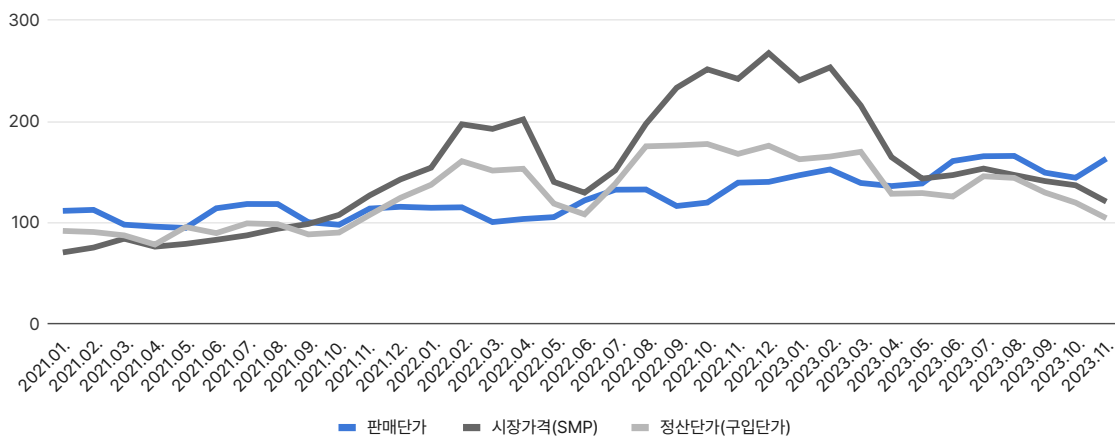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 2022년 전력구매 가격의 급상승에도,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 기조 등의 여파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전력 판매 단가가 구매 가격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

[그림 2] 한국전력 전력 판매단가 및 구입가격 변화

한국전력 판매단가 및 구입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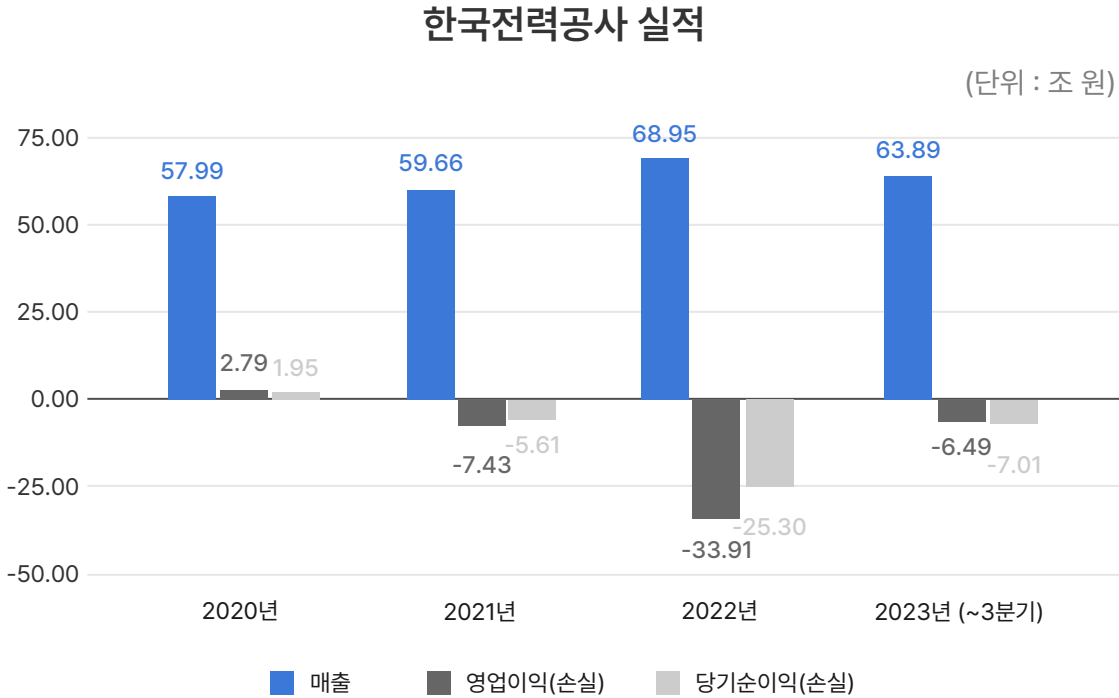
(단위 : 원/kWh)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 한국전력은 역마진 구조하에서 2021년 7.5조 원, 2022년 34조 원, 2023년 3분기까지 7.9조 원 등 영업 손실을 지속해 최근 3년 누적 적자(당기순손실)는 50조 원에 달함

[그림 3] 한국전력공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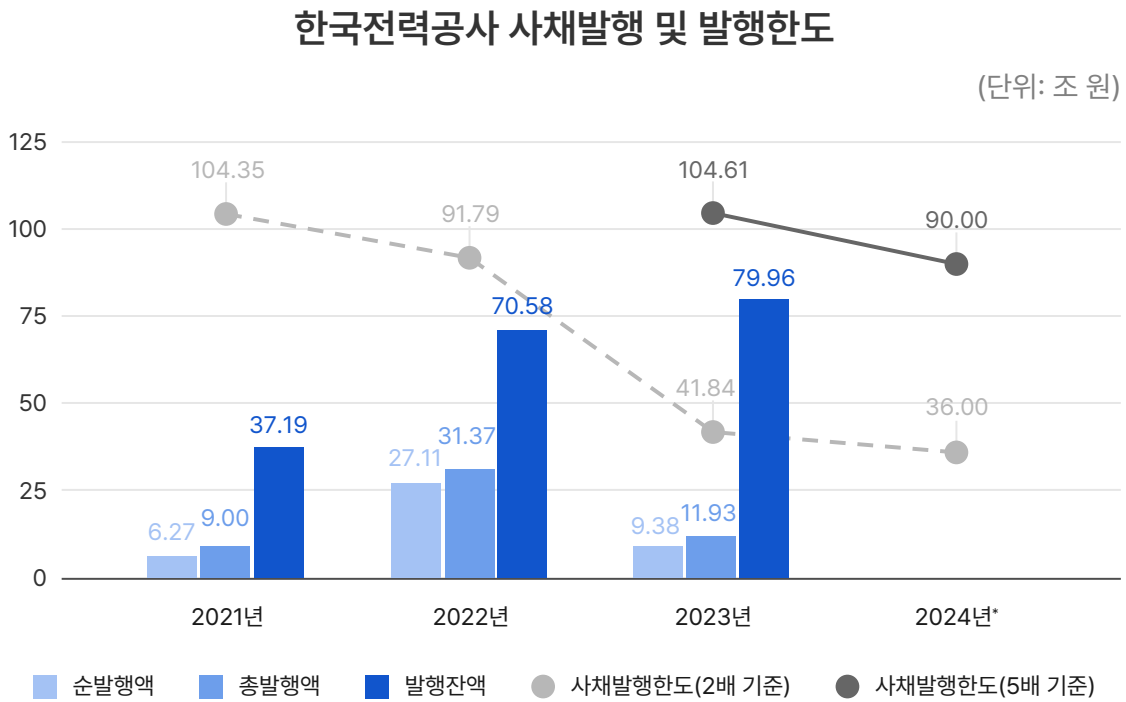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2) 채권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 한국전력은 적자 구조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을 확대해 2022년 31조 원(순발행 27조 원), 2023년 11.9조 원(순발행 9.3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함
- 2022년 12월 기존 한국전력공사법에 규정된 사채발행한도² 초과가 불가피해지면서 국회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 및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상향(별첨 1)
-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2022년 91조 원에서 2023년 42조 원으로 줄어 들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104조 원으로 증가해 채권발행을 지속할 수 있게됨

2 현재 사채의 발행한도는 자본금 및 적립금(이익잉여금+기타자본) 합의 5배로, 각 연도의 사채발행한도는 전년도 말(사업보고서 기준)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5배를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사채발행한도를 정하고 있음. 사채에는 회사채 및 단기사채, 외화사채가 포함됨

[그림 4]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 및 발행한도 변화



출처: 한국전력공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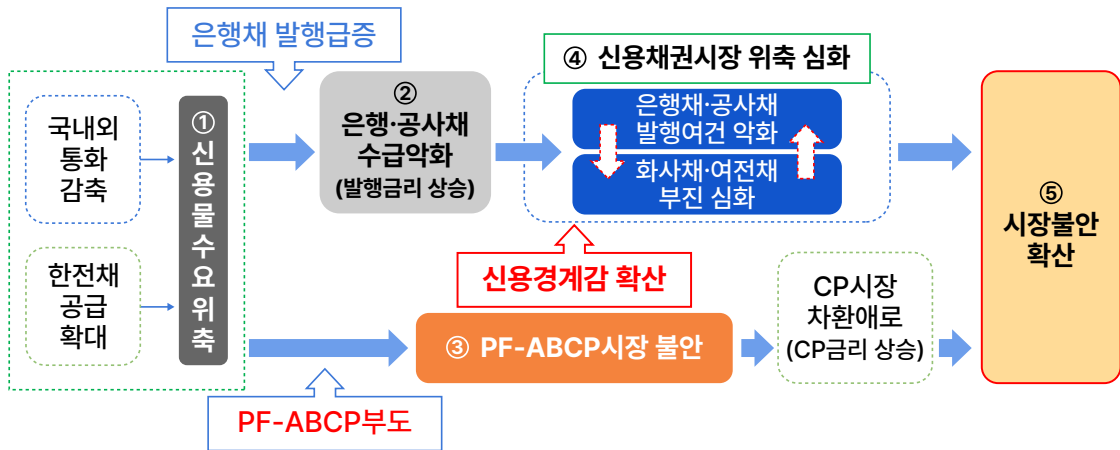
*2024년 발행잔액은 관련 보도 참조 추정치

2.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전망

1) 한전채 블랙홀 현상

-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안정성이 담보³된 한국전력 채권은 이보다 낮은 AA등급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딜사이트, 2022.08.11.](#))되는 등 높은 수준의 이자로 발행
- 고수익·저위험의 한국전력 채권의 발행 증가는 채권 시장의 한정된 자금 공급을 독점하고, 일반 기업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고 한정된 자금 공급을 독점하는 '한전채 블랙홀' 현상([한국경제, 2022.11.11.](#))을 촉발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짐

[그림 5] 한전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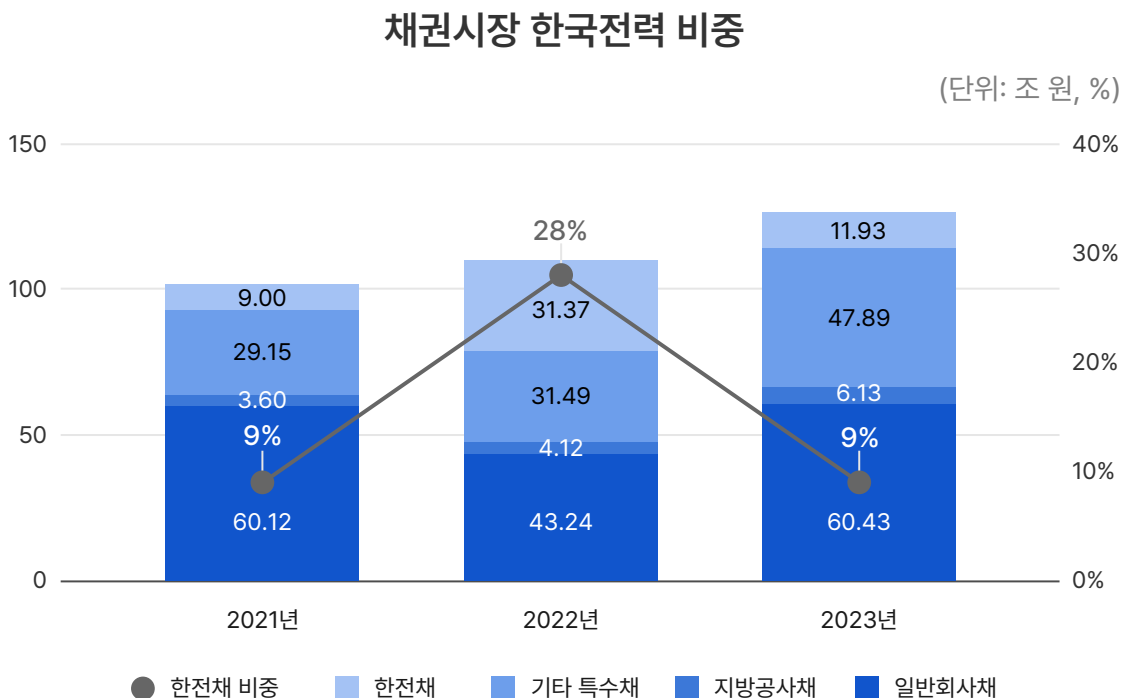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2022\)](#)

- 실제 한국전력 채권(한전채)이 관련 채권 발행 시장(특수채+일반회사채+지방공사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9%에서 2022년 29%로 급증했고, 일반회사채 발행량은 2021년 60조원에서 2022년 42조 원으로 30% 감소해 기업 자금조달을 상당 부분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남
- 2022년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기와 겹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됨

3 한국전력공사 채권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고려해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AAA)를 부여받고 있음

[그림 6] 채권시장 한국전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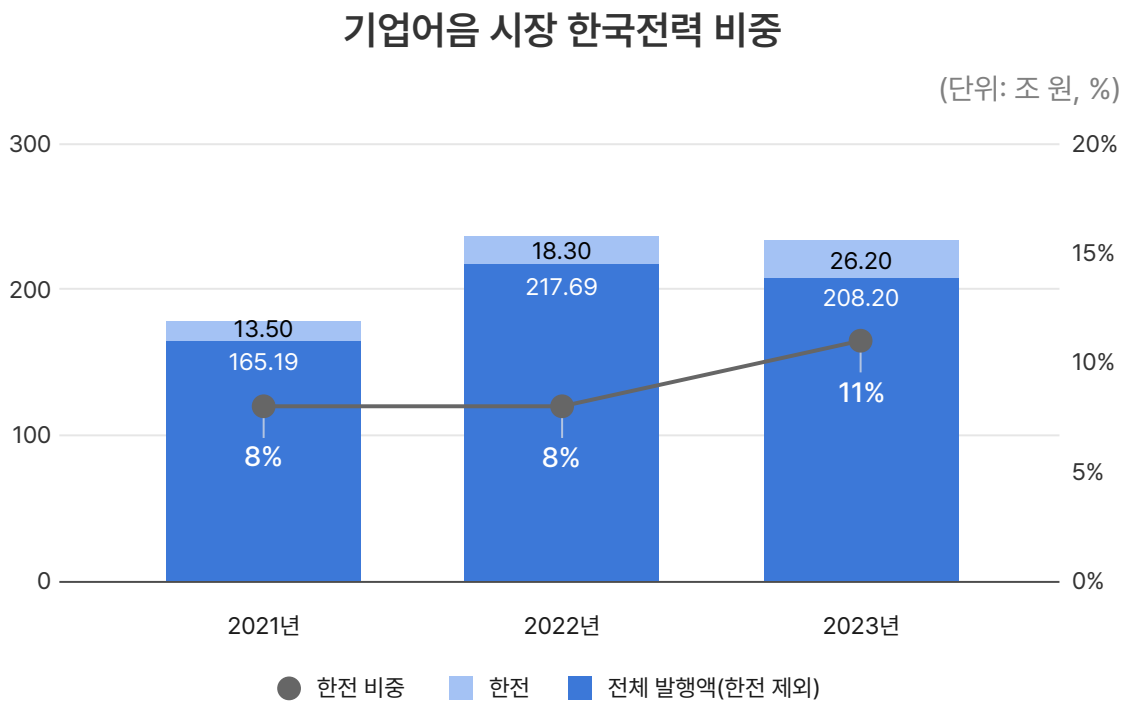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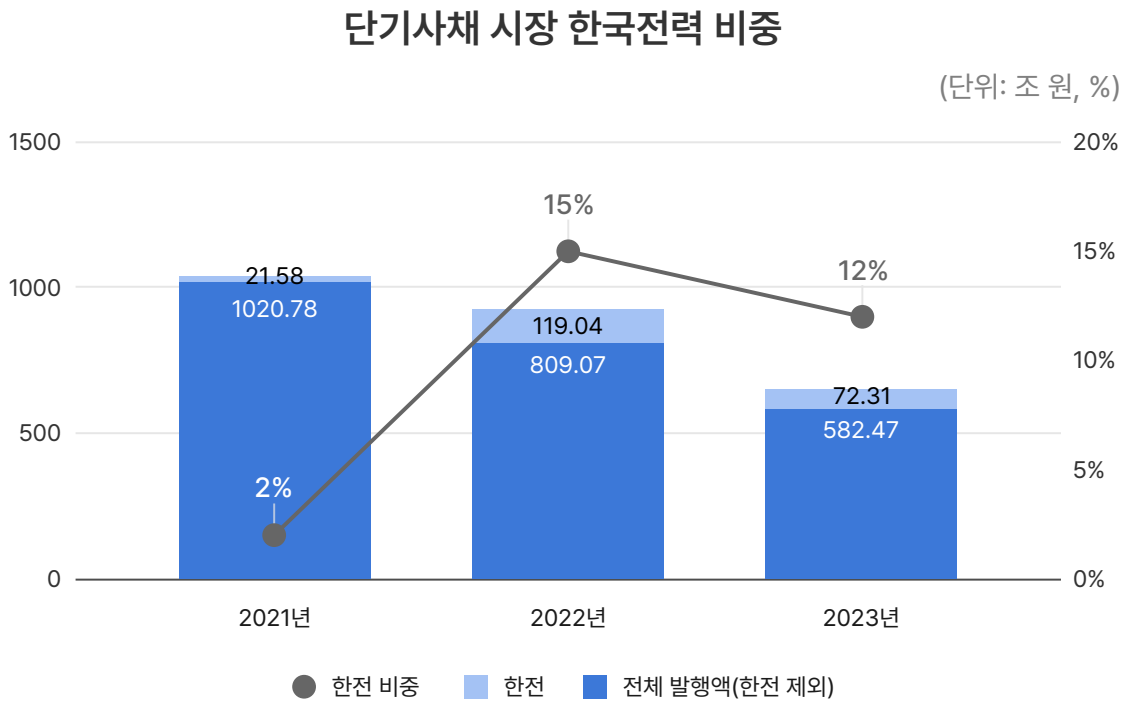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보털(SEIBRO)

*연도별 발행액 기준

2) 채권 발행 축소와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

- 금융당국의 발행 축소 요구에 한국전력은 2023년 상반기 11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이후 하반기 회사채 발행은 5천억 원에 그침
- 채권 발행 축소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 대신 단기사채와 사채발행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어음(CP)를 통한 자금 조달을 지속함
- 2022년 하반기부터 발행량이 급증한 단기사채는 2022년 전체 단기사채의 15%, 2023년 12%를 차지하였으며, 기업어음의 경우 2023년 발행량이 증가해 전체 기업어음 중 비중이 2021년과 2022년 8%에서 2023년 11%로 증가함
- 기업어음은 회사채 및 단기사채와 달리 사채발행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통한 발행 확대가 가능함
- 이는 앞서 채권시장 블랙홀 현상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의 CP발행을 위축시키거나, 금리 수준을 높여 부담으로 작용함([연합인포맥스, 2023.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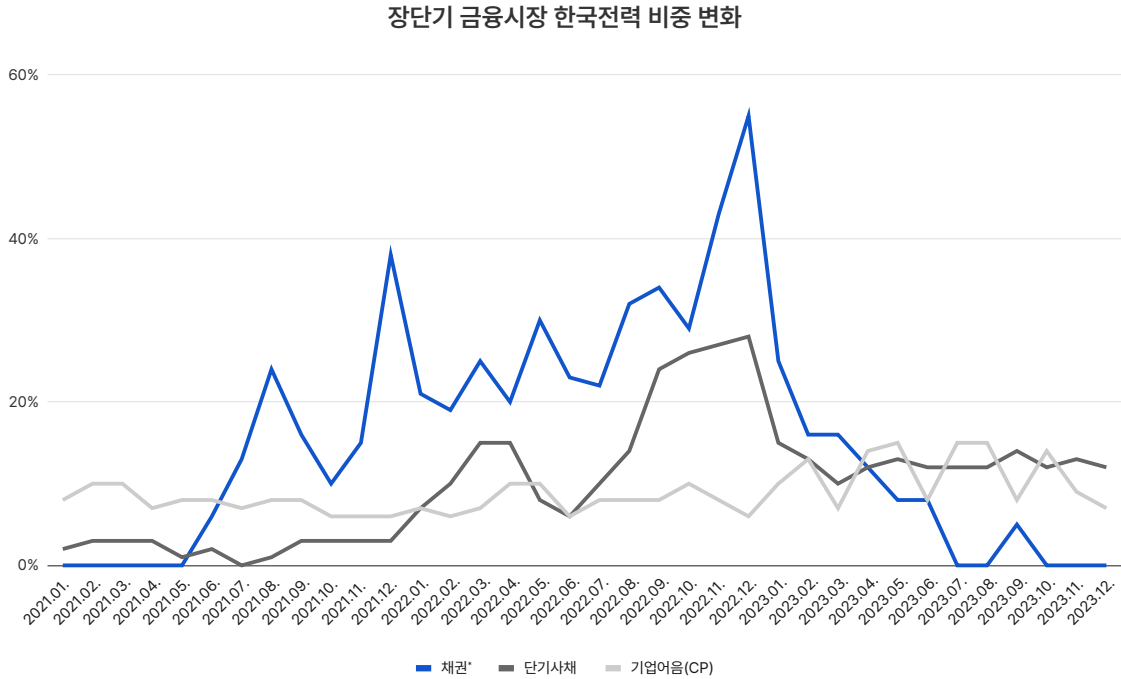
[그림 7] 단기금융 시장 한국전력 비중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보털(SEIBRO)

*연도별 발행액 기준

[그림 8] 장단기 금융시장 한국전력 비중 변화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보털(SEIBRO)

*채권: 한전채/(특수채+일반회사채+지방공사채), 단기사채·기업어음: 한전/전체 발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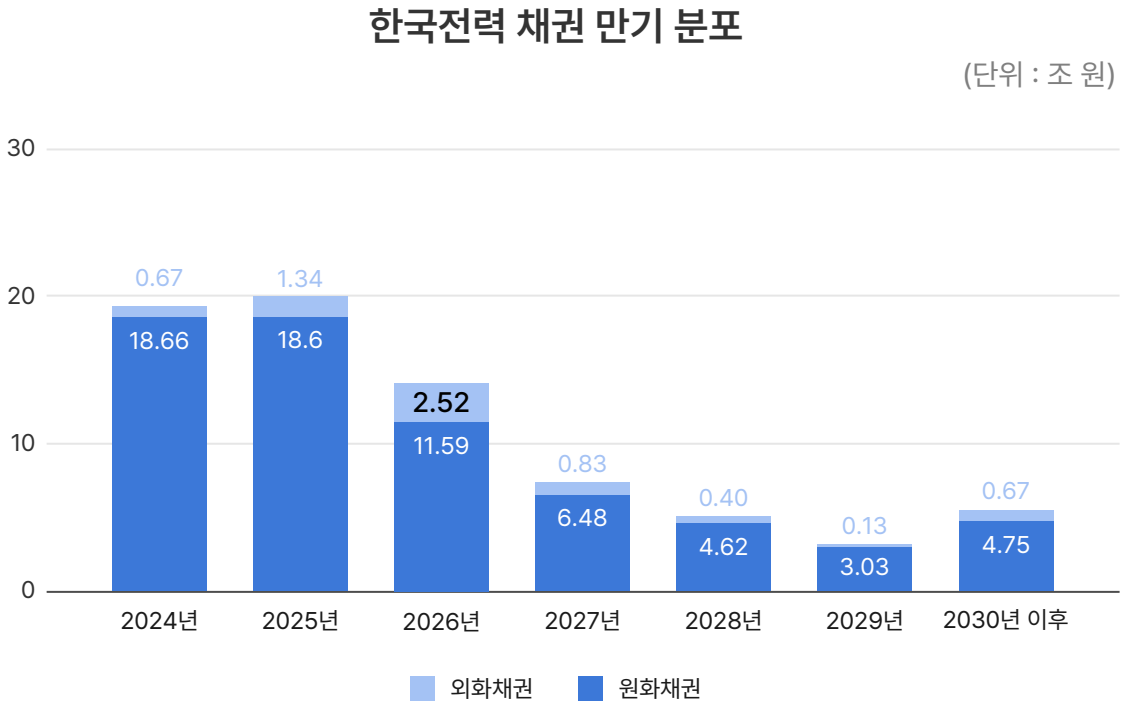
**월별 발행액 기준

3) 중간배당 및 지분매각을 통한 사채발행한도 확대

- 2023년 3분기까지 분기보고서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은 약 14조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사채발행한도는 70조 원으로 2023년 12월 기준 사채발행잔액 80조 원 보다 낮음
- 2022년 말에 이어 다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2023년 12월 중간배당을 요청해 이들 자회사의 이사회 의결로 3.2조의 중간배당을 지급받았으며,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지분 매각으로 3,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
- 2024년 적용될 사채발행한도는 9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만기 채권의 연장 및 10조 원 대 추가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연합뉴스, 2024.01.01.](#))
- 2022년부터 발행량이 급증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발행된 원화 및 외화 채권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중 19 조 원의 채권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며, 만기채권의 재발행 및 추가 발행 확대시 20~30조 원의 채권 발행 전망

-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과 같은 한국전력의 채권 및 어음 발행을 통한 자본시장 구축효과가 지속된다면 한전채 블랙홀 현상과 금융시장 불안정 확대가 재발될 가능성 높음

[그림 9] 한국전력 채권 만기 분포



출처: 한국전력공사 분기보고서

*2023년 12월 기준

4) 글로벌 해외 운용사들의 한전채 보이콧

-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회피할 대안으로 한국전력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한 채권 발행을 타진해왔고, 2023년 7월 1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연합인포맥스, 2023.07.25.](#)) 하는 등 2023년 말 현재 외화 채권 발행 잔액은 약 6조 원⁴
- 한국전력은 구입 전력 중 석탄과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30% 수준이며,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40% 가량이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화석연료 기업으로 지목됨

4 한국전력은 2024년 1월 현재 12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해외채권을 추가 발행해 외화채권발행 잔액은 약 7.6조 원으로 증가([연합인포맥스, 2024.01.25.](#))

- 글로벌 기후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채권 이니셔티브인 독식 본드 이니셔티브([Toxic Bond Initiative](#))는 한국전력을 30대 화석연료 기업(Dirty 30)에 선정하고, 글로벌 금융 기관 및 기관투자자에 한국전력 채권을 매입하지 말 것을 촉구함([연합인포맥스, 2022.11.02.](#))
- BNP파리바, HSBC자산운용 등 금융기관과 APG 등 연기금은 한국전력의 석탄발전 의존도와 불충분한 탄소중립 계획 등을 사유로 한국전력 채권에 대한 투자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12월 중 진행한 글로벌 채권 발행 역시 이 같은 반환경 문제로 발행 주관사 선정에서 어려움([연합인포맥스, 2023.12.14.](#))을 겪고 있음
- 글로벌 금융시장의 ESG와 기후위기 대응 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 비중 20~30%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의존 구조는 글로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중요 걸림돌로 작용

3. 향후 대응 과제

1) 사채발행 감독 강화

- 공기업의 적자 운영 체계를 정부가 보증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도덕적 해이에 기반 해 적극적인 재무 개선 노력보다 채권 발행을 우선하고, 정부 역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하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황순주, 2021)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과정에서도 단순 발행한도 확대가 아닌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 할 것을 명시한만큼 한국전력의 추가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공사의 경영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현재 사채발행한도 관련 법은 사채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전력은 이를 장단기 회사채 및 외화사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가 공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임을 고려하면 그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은경, 2012)
- 사채발행한도 적용 시점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발행 후 해당연도 사채발행한도를 연간 적용하고 있으나, 분기별 경영실적의 변동이 심하고, 이를 추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사채발행한도가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장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 채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⁵, 시장형 공기업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임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영향 고려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은 별도의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고, 중간배당 등을 통해 자본금이 이전될 수 있는 점, 일부 공기업은 사채발행액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2 배를 넘어선 점 등을 고려해 발전 자회사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연합인포맥스, 2023.09.19.](#))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신고서 적용범위를 다룬 118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은 투자자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사채 발행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증권신고서 및 유관 서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2)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한계

-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단기적 해결 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역마진 구조의 해소이며, 이에 대한 요구는 한국전력은 물론, 각계에서 이뤄져 왔음
- 총선 등을 고려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으로 적자 구조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2024년 중에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한국전력 누적 적자는 3년 간 50조 원이며, 늘어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도 연간 4~5조 원대에 이르러, 단기간 내 손실 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무엇보다 2022년과 같은 국제분쟁,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산업 구조는 한전 적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함은 물론, 기후 위기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고 있음
-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 해소는 물론 국제 정세에서 보다 자유로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함
- 화석연료 중심 발전을 우대해주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하에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빠르게 전환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빠른 확산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한가희 외, 2022)
-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는 한국전력의 또 다른 사업 부문인 송배전망 투자를 지연시키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저해([경향신문, 2023.10.25.](#))하고 있어 송배전망 부문의 독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 2022)
- 화석연료 중심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개선, 송배전망 사업의 분리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은 글로벌 시장을 포함한 ESG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금융 시장 및 경제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별첨 1]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내용(2022년 12월)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략)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 ---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8조(감독)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2년 12월 27일)

참고문헌

- 황순주(2021),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해결방안', KDI FOCUS 통권 제106호, 한국개발연구원
- 이은경(2012),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_문제점과 개선과제', 사업 평가현안분석 36호, 국회예산정책처
- 박선영(2023), '채권시장, 그리고 2023년 현재의 경제를 보는 내러티브에 관해', 얼룩소
- 한가희, 최명균(2022), '한전적자 검은진범', 이슈브리프, 기후솔루션
- 전국경제인연합회(2022),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비교 및 시사점', 글로벌인사이트
- Christina Ng, Hazel Ilango(2022), 'KEPCO's clean energy transition hangs in the balance', IEEFA

관련 통계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보털(SEIBRO)
-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관련 기사

- [딜사이트\(2022.08.11.\), '올해 '18兆' 쏟아진 한전채...우량 회사채보다 금리↑'](#)
- [한국경제\(2022.11.11.\), '한전, 올 적자 30조대...'자금시장 블랙홀' 한전채 계속 쏟아진다'](#)
- [연합인포맥스\(2023.10.18.\), "'랩신탁 검사 결론 달라"...한전·은행發 CP 위기 느끼는 증권사'](#)
- [연합뉴스\(2024.01.01.\), '자회사서 3.2조 당긴 한전, 채권 10조 추가발행 여력 생겨'](#)
- [연합인포맥스\(2023.07.25.\), '한국전력공사, 10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 [연합인포맥스\(2022.11.02.\), '한전채 해외발행 하라고?...글로벌 운용사들 사실상 '보이콧''](#)
- [연합인포맥스\(2023.12.14.\), '한국전력, 외화채 발행 채비...반환경 리스크에 주관사 선정부 터 빼격'](#)
- [연합인포맥스\(2023.09.19.\), '사채한도 '빨간불'인데 발전자회사 "채권 더 찍겠다"'](#)
- [경향신문\(2023.10.25\), '전력망 구축 지연...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손실 10조원 넘어'](#)
- [연합인포맥스\(2024.01.25.\), '한국전력, 12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넉넉한 수요에 증액 성사'](#)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기후위기에서 경제위기로: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발간일 2024년 1월

저자 고동현 기후금융팀장 (donghyun.go@forourclimate.org)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및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리서치, 법률, 대외 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폭 넓은 방법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